

“누리 예산 챙겨라” 전국 교육감 국회 압박

〈만 3~5세 무상보육〉

시도 교육감 협의회 성명... 정부 시행령 개정 중단 요구

여·야 원내대표 지방교육재정 논의 계획 밝혀 결과 주목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가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만큼 국회가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성 메시지’로 일컫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 등은 이날 ‘2+2’ 회동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안 등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논의 계획을 밝혔다. 정에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5일 오후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심각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한 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교육이 황폐화하고 교육 대란이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교육부는 2016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이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감들의 성명서는 정부를 상대로 했지만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점을 고려하면 국회를 향해 관련 예산을 챙길

것을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초등학교 신설시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규모를 현행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 ▲교육공무원 무급휴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 조속 추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검정고시 시험과목 면제의 연례제한 완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한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재정파탄 위기극복을 위한 대시민설명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는 시기(7일)에 맞춰 ‘보육대란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광주시민운동본부’를 결성,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우수수~ 은행 털기
의 열매를 털어내고 있다.

광주시 북구 공원녹지와 직원들이 5일 북구청 앞 도로변에서 교약한 악취로 주민 민원이 많은 은행나무를 털어내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교감 선발방식 논란

“인터넷서 공개 검증, 인민재판·음해성 투서 부추길 수 있어”

광주에서 교감이 되려면 인터넷상에서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인민재판’이나 음해성 투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기존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발 시험 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 학교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개선안은 교감 연수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학교관리자로서의 도덕성 검증 ▲학교 운영과 교육

정책 수행에 필요한 교직 및 교양 면접을 강화하는 한편, 면접위원의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교사가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특히 향후 교감 선발 시험 응시자의 경우 사전조사, 전격조회, 인터넷 상에서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학교관리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 소명 절차를 거쳐 현장 심사까지 받도록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양보건대생들 설립자 상대 등록금 반환소송

이홍하씨 5일 구속 수감

광양보건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144명이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설립자 이홍하(76)씨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외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어 연말까지 500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양보건대학교에 따르면 임모씨 등이 학교 졸업생 55명과 재학생 89명 등 144명은 이날 설립자 이씨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설립자 이홍하의 교

비 거액 횡령으로 말미암아 시설·설비의 미비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보건의료 관련 중견 기술인으로서의 실력이 충분히 배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마치거나 아직 교육을 받는 실정”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광양보건대 관계자는 “현재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학생이 늘고 있어 연말까지 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홍하씨는 5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1 몰림 00:15
해질 18:11 몰짐 14:18

안개 주의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끼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4/27	보성	맑음	10/26
목포	맑음	14/25	순천	맑음	14/27
여수	맑음	16/24	영광	맑음	11/26
나주	맑음	10/27	진도	맑음	11/27
완도	맑음	14/26	전주	맑음	12/26
구례	맑음	10/27	군산	맑음	11/25
강진	맑음	11/27	남원	맑음	10/26
해남	맑음	10/27	축산도	맑음	17/22
장성	맑음	10/2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먼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먼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먼바다(서)	북동~동	0.5~1.5	북동~동	1.0~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8:17	01:38	21:18	13:46
여수	03:50		09:46	
	16:46		23:40	

◇주간 날씨

7(수)	8(목)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	☀	☀	☁	☀	☀	☀
13/26	14/26	14/22	12/20	12/21	12/21	11/22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운동 60
- 빨래 90

노인에 가짜 건강식품 판매 일당 검거

나주에 ‘뺏다방’ 열고 흑삼·녹용 판매 수억대 부당 이익

이른바 ‘뺏다방’을 차려놓고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노인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단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을 취한 김모(51)씨와 최모(51)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영업에 가담한 송모(46)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나주시 중앙동에 ‘뺏다방’을 열고, 매일 50~300여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흑삼과 녹용 등을 판매해 2억 3000만원 상당의 식품과 의류기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수의와 여행상품 등 모두 8억90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흑삼 등이 압과치매를 낫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노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광주 고려인마을 18일 ‘주민 한마당’

(새고려인마을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제2어린이공원에서 ‘제3회 고려인의 날 고려인 주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고려인마을은 지난 2013년 10월 셋째 주 일요일을 ‘고려인의 날’로 지정, 해마다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떠돌다 고국으로 돌아온 고려인 동포가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지역 주민과도 소통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번 행사에는 고려인 동포와 주민 1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유공자 포상, 고려인 전통 음식 시식, 러시아·중앙아시아 민속음악 공연, 고려인 유랑 사진전 등이 예정돼 있다.

고려인마을 관계자는 “고려인 동포는 구한말 농업 이민과 독립운동을 위해 국경을 넘었던 우리 선조의 후손”이라며 “이들이 고국에서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961-1925. /김경민기자 kki@

INTERNATIONAL YEAR OF LIGHT 2015

2015년은 세계 빛의 해!
UN이 지정한 “세계 빛의 해” 기념 지정행사

전시회 관람객 무료입장가능

제14회
국내 최대 광산업전문 산업전시회
2015국제광산업전시회 및
국제광융합기술컨퍼런스
산·학·연 관계자와 일반시민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2015. 10. 7(수) ~ 9(금)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Photonics KOREA 2015
www.photonickorea.org

전시회 POINT !!

- IEC TC 86(국제광통신표준화 기구) 총회 병행 개최
- 동부라이텍, LG이노텍, 한국전력, SKT 등 대기업과 독일, 덴마크, 일본, 중국 해외 국가관 구성 참가
- 참가기업에게 국내외 바이어 5명 이상 상담매칭 지원(27개국 195명 참가)
- 2개 기조연설, 4개 세션, 14개 주제발표 2015국제광융합기술컨퍼런스
- 광산업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기술이전설명회·세미나 등 20개 행사 개최
- 미디어 LED&OLED융합전 등 시민 참여 문화프로그램(1일 3회 문화공연)

- 전시회 관람객 대상 경품추첨 이벤트 진행 -

광주MOC 전시 후원개
친환경건축박람회
SIGN EXPO 2015
MIOO **광주옥외광고대상전**
동시개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광주광역시, 주관: KAPID 한국광산업진흥회, 후원: 한국관광공사, G-POST

참가문의 : 한국광산업진흥회 사업지원부 Tel. 062-605-9640